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Violence on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정혜정

Division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ung, Hyejeong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research tested the path model which examin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on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wo family violence variables such as witnessing parents' marital violence and being abused by parents were the exogeneous variables in the path model, while the mediated variables were consisted of (1) the social-learning-theory-derived variables such as acceptance of violence, positive outcome expectations of using violence, and aggressive conflict-coping behavior, and (2) control-theory-derived variables such as attachment, belief, and commitment. Data were fro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completed by 332 male and 469 female students selected by stratified quota sampling method. The path analysis was done for males and females separately, since female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dating violence than males.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showed that first, for both males and females, being abused by parent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dating violence, while witnessing parents' marital violence did not have effect on dating violenc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Second, for male students, acceptance of violence and conflict coping behavior found to be the mediated variables in the effect of being abused by parents on dating

Corresponding Author: Hyejeong Chung, Division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Chollabuk-Do, 561-756, Korea
Tel: 82-63-270-3828 Fax: 82-63-270-3839 Email: chunghj@moak.chonbuk.ac.kr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3-D00141).

violence. Third, for females, a control-theory-derived variable of belief as well as all three social learning theory-derived variables mediated the influence of being abused by parents on dating violence

주제어(Key Words):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데이팅 폭력(dating violence), 아동학대(child abuse), 갈등대처행동(conflict coping behavior)

I. 서론

가정폭력 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가정폭력은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였고, 특히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녀들의 부적응이나 폭력적 성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 결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강경아, 1998; 김은희·김정옥, 200; 신덕용, 2001; 이해련, 1998)이고 혼전 단계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혼전 단계에 있는 남녀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의 주제 가운데 가장 새로운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데이팅 폭력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데이팅 관계 동안 발달된 상호작용 패턴이 전수되어 결혼관계를 위한 토대가 되며 데이팅은 개인이 이후의 결혼역할을 사회화하는 맥락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데이팅 폭력은 미래의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Alexander, Moor, & Alexander, 1991; Bernard & Bernard, 1983) 때문이다. 자유혼이 보편적인 오늘날 미혼남녀는 데이팅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성간에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데이팅이 친밀감 형성과 낭만적 사랑의 시간이며 이 관계에서는 갈등이나 폭력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데이팅은 종종 갈등의 시간이며, 그 속에서 파트너들은 분노, 질투, 혼란의 시기 동안 신체적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Molidor & Tolman, 1998)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김예정·김득성, 1993; 김예정·김득성, 1999; 김용미, 1996a, 1996b)은 21-69%의 대학생들이 남녀관계에서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국외의 연구(Molidor & Tolman, 1998)에서도 20-50%가 이성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데이팅 폭력은 배우자 폭력의 전조로서, 심한 아내구타 피해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쉼터, 상담소, 의료기관을 이용한 여성들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들(김재엽, 1998; 한국여성개발원, 1993; 허남순, 1992)을 보면, 아내구타 피해여성들이 결혼하기 전 시기부터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도 부부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혼전 단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통해서 갈등을 표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관계에서도 갈등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Makepeace, '1986' Stets & Pirog-Good, 1987)고 보고되어 데이팅 폭력의 역동성이 결혼관계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데이트 당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결혼 후 가정폭력, 특히 부부간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차원에서 결혼 전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데이팅 폭력에 대한 관심은 1981년 Makepeace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많은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데이팅 폭력으로 세대간 전수되는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격성이나 폭력은 타인의 폭력적 행위를 관찰하고 또 그러한 행위의 긍정적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된다고 가정하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은 가정폭력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변인에 관한 연구의 강력한 이론적 기초가 되어 왔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가족원간의 폭력적 행동도 일반 행위

와 마찬가지로 차별강화나 모방과 같은 일반 행동 학습 원칙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학습되며, 부모의 폭력 사용을 관찰한 자녀들은 폭력행동 뿐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각본까지 관찰한다고 가정한다. 그 각본에는 폭력사용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그리고 공격적인 갈등대처행동이 포함되는데(Foshee, Bauman, & Linder, 1999), 대학생 자녀들의 가정폭력 경험은 이 변인들을 통하여 데이팅 폭력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통제이론(Hirschi, 1969)도 가정폭력이 자녀들의 폭력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통제이론은 폭력이나 이탈행동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성향으로 보며, 폭력이나 이탈행동을 막아주는 것은 사회적 유대라고 가정한다. 즉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유대가 약하거나 훼손될 때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한다고 본다. 사회통제를 구성하는 요인은 애착, 몰입(commitment), 신념이며, 개인이 이들 사회적 유대요인을 강하게 가질수록 문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통제이론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폭력 자체를 학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녀들은 부모와의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없을 것이며, 신념 및 몰입의 유대발달이 방해받을 것이므로(Foshee et al., 1999), 결국 데이팅 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은 대학생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은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 이론에서 제시한 변수들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가정폭력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를 밝히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 자녀의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가정폭력의 재생산을 막

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혼전 폭력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높임으로써 혼전의 이성관계 증진이나 예비부부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여 가정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데이팅 폭력의 개념과 실태

데이팅 폭력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것은 데이팅(dating)이 구애(courtship)나 혼전(premarital)의 개념과 혼용되고, 또 폭력이 공격이나 학대의 개념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을 종합하여 보면(Murphy, 1999), 데이팅 폭력은 '미혼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한 데이트뿐만 아니라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선택과정과 관련된 낭만적인 남녀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정서적, 신체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데이팅 폭력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1981년 Makepeace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데이팅 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의 국외 연구(O'Keefe, 1997; O'Keefe & Laura, 1998)에 의하면 미혼남녀간 신체적 폭력의 발생율이 약 40%정도로 나타났고, Riggs와 O'Leary(1996)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의 30%와 여자 대학생의 34%가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김예정과 김득성(1993)의 데이팅 폭력 실태조사는 심리적 공격이 대학생의 36%, 신체적 폭력이 24.7%라고 보고하였으며, 김용미(1996a)는 21.3%의 대학생들이 이성에게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99년에 이루어진 김예정과 김득성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69%가 이성에게

심리적 공격을 한 적이 있고, 신체적 폭력은 40%, 그리고 성적 폭력은 23%가 가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데이팅 폭력 실태를 조사한 유선영(2000)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친구로부터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을 하나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49.6%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데이팅 폭력 실태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약 21-40%의 대학생들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또 심리적 공격의 경우 그 빈도가 훨씬 더 높아서 약 36-70%의 심리적 공격이 데이팅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팅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데이팅 관계가 낭만적 사랑과 친밀감 형성의 관계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데이팅 관계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이 발생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이론적 기초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가족원간의 폭력적 행동도 일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차별강화나 모방 같은 일반 행동학습 원칙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학습되는데, 특히 부모는 자녀들의 주요한 행동모델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에 대한 학습은 더욱 잘 일어난다. 또한 정서적으로 중요한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험보다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이후에 모방하여 실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Bandura, 1973). 따라서 원가족에서 가정폭력과 같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경험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 정도가 더 심할수록 관찰자는 이후에 그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더 높다(MacEwen, 1994). 이러한 가정은 여러 경험적 연구(Carter, Stacey, & Shupe, 1988; DeMaris, 1990; Kalmuss, 1984; Zaidi, Knutson, & Mehm, 1989)들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련 문헌을 고찰한 DeMaris(1990)의 연구결과, 대다수의 남성 구타자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아동학대의 희생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배우자 학대나 부부폭력 또는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보다 최근에는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관련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혼전 폭력의 경험,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 등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를 연구한 김용미(1996b)의 연구는 변인들 사이에서 미약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으나, 그 관계가 유의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예정과 김득성의 연구(1999)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심리적 및 신체적 데이팅 폭력과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Sappington, Pharr, Tunstall과 Rickert(1997)의 연구 결과, 아동기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 경험은 청년기의 데이팅 폭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과 관련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O'Keefe(1997)의 연구에서도 데이팅 폭력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부모간 폭력 사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Ronfeldt, Kimberling과 Arias(1998)의 연구에서도 원가족에서 신체적 폭력의 사용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교제관계에서도 상대에게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국외의 연구들은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 경험이 이후의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직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가의 여부는 연구결과가 매우 불일치한다. 그리하여 많은 연구자들(예, 김예정·김득성, 1999; Alexander, Moore, & Alexander, 1991)은 남녀 모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것이 이후의 데이팅 폭력이나 배우자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남성에게는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수 효과가 거의 일관성있게 나

타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분석이 더 요구되는 상황인데 특히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사회학습이론 매개변수들

사회학습 이론은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부모의 폭력 사용을 관찰한 자녀들은 폭력행동 뿐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각본까지 관찰하는데(Bandura, 1977), 그러한 각본에는 폭력사용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그리고 공격적인 갈등대처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매개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변인은 폭력사용기대로서, 일반적으로 폭력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폭력이 매우 강력한 통제수단이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관찰한 자녀들은 폭력을 사용한 결과 많은 긍정적인 결과(예, 폭력을 행사한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복종)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학습 이론은 폭력부모의 자녀들이 부모의 폭력 사용의 부정적 결과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관찰하였고 따라서 폭력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관련된 Foshee 등(1999)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의 경우에만 폭력사용에 대한 기대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인은 폭력허용도로서, 사회학습이론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애정적인 관계에 있는 가족원이 가해자라는 점에서 피해자는 애정과 폭력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고, 폭력 사용이 정당한 것이라는 가치나 규범을 발전시키게 되어 폭력적인 언행에 가치를 부여하여 폭력의 하위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폭력에 호의적이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가치를 학습할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경험은 폭력에 대

한 허용적인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팅 폭력도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폭력 허용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유선영(2000)의 연구 결과, 부모간 폭력 및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여대생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에 비해 데이팅 폭력 허용도가 더 높았고, 또 폭력 허용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의 연구를 보면 청소년들의 아내구타 허용도는 재산범죄 및 비행과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셋째 갈등대처행동으로서, 사회학습이론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관찰한 자녀들은 동시에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갈등대처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자녀들은 폭력적인 부모가 갈등이 있을 때나 분노가 일어날 때 건설적으로 대처하기보다 폭력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대처함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폭력부모의 자녀들은 건설적 갈등해결 방법과 건설적 갈등해결의 긍정적인 효과를 관찰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Foshee et al., 1999).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Lloyd, 1987; Margolin, Burman, & John, 1989),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들은 대개 건설적인 갈등해결 능력이 부족하였고, Foshee 등(1999)의 연구에서도 남녀 모두 가정폭력 경험은 남녀 모두의 공격적 갈등반응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사회학습 이론 변수들은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4. 통제이론 매개변수들

통제이론도 가정폭력이 자녀들의 폭력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통제이론은 폭력이나 이탈

행동을 학습된 행동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성향으로 보며, 폭력이나 이탈행동을 막아 주는 것은 사회적 유대라고 가정한다(Hirschi, 1969). 즉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유대가 약하거나 훼손될 때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한다고 본다(Friedman & Rosebaum, 1988).

사회통제를 구성하는 요인은 애착, 몰입, 신념이며, 개인이 이들 요인을 강하게 가질수록 문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Hirschi, 1969). 애착은 관습적인 규범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예, 부모)과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고, 신념은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며, 몰입은 관습적 활동(예, 학교, 종교)에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시켜 이탈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사회적 유대가 약해질 때 사람들은 관습적이고 친사회적이며 규범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Hirschi, 1969; Nye, 1958).

통제이론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애착은 규범을 내면화시키는데 필요하며, 신념 및 몰입의 유대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하다(Hirschi, 1969; Menard, Elliot, & Wofford, 1993).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사회의 규칙을 믿는 경향이 더 강하고 사회가 조장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와 사회의 규칙을 따를 책임 또는 부모와 사회가 장려하는 활동에 참여할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Foshee & Bauman, 1993).

통제이론에서 볼 때 가정폭력에의 노출은 부모와의 애착을 방해할 것이며, 신념 및 몰입의 유대 발달이 방해받을 것이므로, 결국 데이팅 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Foshee 등(1999)은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관습적 규칙에 대한 신념이 낮았고, 신념이 낮을수록 데이팅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함을 밝혔으나 이는 남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결과다.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간접적인 연구로서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1998)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관습적 규범에 대한 신념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및 비행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이 있었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통제이론 변인들의 매개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5. 연구가설 및 모형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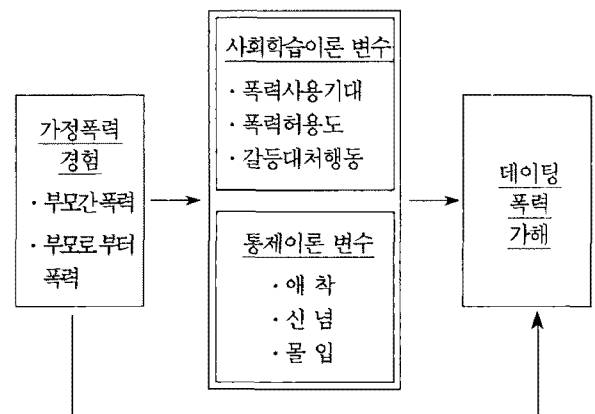
(1) 대학생들의 가정폭력(부모간 폭력 관찰,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데이팅 폭력 가해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대학생들의 가정폭력의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학습 이론에서 도출한 매개변인들(폭력사용에 대한 긍정적 기대, 폭력 허용도, 공격적 갈등대처행동)의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3) 사회학습이론 변인들의 정도가 높을수록, 데이팅 폭력 가해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4) 대학생들의 가정폭력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통제이론에서 도출한 매개변인들(애착, 신념, 몰입)의 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5) 통제이론 변인들의 정도가 낮을수록, 데이팅 폭력 가해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이상의 가설들은 남녀 대학생을 분리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남녀에 미치는 영향력에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못하므로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 사회학습이론 변수들, 통제이론 변수들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가설들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자료는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되었다. 가능한 대표성 있는 연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소재지의 크기, 성별, 전공을 2000년 한국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한 한국교원연감 자료를 기초로 하여 층화된 할당 표집(stratified quota sampling)방법에 의해 표집하였다. 그리하여 5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와 6개 중소도시(읍, 면단위 포함)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10개교와 2년제 전문대학 6개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전공(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과 성별을 고려하여 질문지를 배부함으로써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에게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응답 후 밀봉하도록 만든 봉투를 배부하고, 연구자에게 돌려주도록 함으로써, 연구대상의 사적인 경험이 연구자 이외의 외부인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표집 절차에 주의를 기울였다.

총 1,000부의 질문지를 해당 대학의 교수와 시간강사에게 의뢰하여 이성교제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학생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899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및 이성교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드러난 질문지를 제외한 총 802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

었다. 이성교제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한정된 것은 일시적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자 함이며, 데이팅 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교제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지역과 전공 및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구분 등을 기초로 층화된 할당표집한 결과를 반영하듯 골고루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학생(332명, 41.4%)보다 여학생(469명, 58.5%)이 더 많이 표집된 것은 설문배부자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던 것과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평균 연령은 21.78세($SD=2.26$)이고, 평균 교제기간은 17.55개월($SD=17.45$)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 평균은 310,89만원($SD=28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데이팅 폭력 가해 척도

데이팅 폭력 가해 경험은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공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폭력은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갈등척략척도 2(CTS 2)를 기초로 Straus(2002)가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Study에서 데이팅 관계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공격은 CTS 2 및 Shephard와 Campbell(1992, 유선영, 2000에서 재인용)의 ABI(Abusive Behavior Inventory)를 기초로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성적 폭력은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 그 발생율이 신체적 및 심리적 데이팅 폭력에 비해 매우 낮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성적 폭력 가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데이팅 폭력의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가해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 그 빈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팅 폭력 가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남학생은 Cronbach's $\alpha=.86$, 여학생은 $\alpha=.88$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학생	332 (41.4)
	여학생	469 (58.5)
연령	20세 이하	294 (36.7)
	21 - 22세	217 (27.1)
	23 - 24세	168 (21.0)
	25세 이상	122 (15.2)
대학 구분	4년제	384 (72.8)
	전문대학	218 (27.2)
학년	1-2학년	442 (55.4)
	3-4학년	356 (44.6)
전공	인문계	318 (39.9)
	자연계	411 (51.6)
	예체능계	67 (8.4)
대학 소재지	대도시	431 (53.7)
	중소도시	371 (46.3)
교제 기간	3 - 6개월	198 (24.7)
	7개월 - 1년	214 (26.7)
	13개월 - 2년	168 (20.9)
	25개월 이상	222 (27.7)
아버지 학력	초등졸 이하	85 (10.8)
	중졸	117 (14.8)
	고졸	338 (42.9)
	대졸	195 (24.7)
	대학원 이상	53 (6.7)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162 (20.7)
	사무직	85 (10.8)
	판매직	121 (15.4)
	서비스직	102 (13.0)
	농어업	102 (13.0)
	생산운수·노무직	134 (17.1)
	기타 무직	61 (7.8)
가계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66 (9.9)
	101 - 200만원	230 (34.3)
	201 - 300만원	203 (30.3)
	301 - 400만원	65 (9.7)
	401 - 500만원	57 (8.5)
501만원 이상	49 (7.3)	
전 체		802 (100)

(2) 가정폭력 경험

가정폭력 경험 가운데, 우선 부모간 폭력 관찰 척

도는 백경임(1998)이 CTS2를 우리나라에서 자녀용으로 수정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20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과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을 각각 질문하여 총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보지 못했다'(0)에서 '자주 보았다'(3)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폭력을 많이 목격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남녀학생 모두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강경아(1998)가 선행 연구들(권자영, 1991; 김혜영, 1990)을 참고로 하여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신체적 폭력 7문항과 정서적 학대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0)에서 자주 있었다(3)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남녀학생 모두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3) 사회학습이론 변수들

우선 폭력사용 기대는 Foshee 등(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한 6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4문항 (예, "파트너를 때린다면 친구들이 나를 멋지다고 할 것이다")과 부정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2문항 (예, "파트너를 때린다면, 그 사람은 나와 헤어지려고 할 것이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사용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나타내도록 점수화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남녀학생 모두 Cronbach's $\alpha = .60$ 이었다.

폭력 허용도는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김준호, 1992)에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폭력은 거부하면서도 구체적인 차원의 폭력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반적 차원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가정폭력과 데이팅 폭력 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아내구타와 자녀체벌에 대한 허용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5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유

선영(2000)이 사용한 4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1(절대 그럴 수 없다)에서 4(매우 그럴 수 있다)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남학생은 $\alpha=.82$, 여학생은 $\alpha=.79$ 였다.

갈등대처행동은 Foshee 등(1999)의 연구를 기초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나타내는 3문항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처행동을 나타내는 3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에 대해 공격적 대처행동 문항으로 “고함을 질렀다”가 있고, 건설적인 대처행동 문항으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진정하려고 하였다”가 있다.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았다)에서 4(대부분 그랬다)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 갈등대처행동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남학생이 Cronbach's $\alpha=.70$, 여학생은 $\alpha=.75$ 였다.

(4) 통제이론 변수들

통제이론 매개변수들은 애착, 신념, 몰입인데, 이들 변인은 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과 Foshee 등(1999)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애착은 부·모와의 친밀감 및 안정감의 정도를 12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남학생 $\alpha=.83$, 여학생은 $\alpha=.85$), 신념은 관습적인 규칙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을 평가하는 5문항 (예, “정직한 것이 좋다”)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념의 신뢰도는 남학생 $\alpha=.72$, 여학생 $\alpha=.69$), 몰입은 관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예, 대학에 가는 것)이 응답자에게 어느 정도 중요하가를 묻는 3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몰입의 신뢰도는 남학생 $\alpha=.60$, 여학생 $\alpha=.62$ 이었다. 각 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적 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의 차이 검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일련의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변수의 세 가지 조건, 즉 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야 하고, ②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야 하며, ③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연구가설 분석에 앞서 우선 t-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데이팅 폭력 가해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심리적 및 신체적 데이팅 폭력 가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들 (Foshee et al., 1999; O'Keefe, 1997; Riggs & O'Leary, 1996)과 일치하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 (Molidor & Tolman, 1998; O'Keefe & Treister, 1998; Stets, 1992; Sugarman & Hotaling, 1989)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대학생들의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 가해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데이팅 폭력 가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데이팅 폭력 가해 경험 유무를 χ^2 검증하였는데(표 3), 신체적 폭력과 전체 데이팅 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86.7%와 여학생의 90.4%가 이성교제중인 파트너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표 2〉 성별에 따른 데이팅 폭력 정도 차이

	남학생 M (SD)	여학생 M (SD)	t 값
심리적 공격	.80 (.82)	1.12 (.97)	-4.90***
신체적 폭력	.19 (.44)	.32 (.58)	-3.70***
전체 데이팅 폭력	.43 (.54)	.64 (.64)	-4.90***

*** p<.001

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40.1%와 여학생의 55.7%가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지금까지 이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결과 (김용미, 1996; 김예정·김득성, 1999) 보다 데이팅 폭력 발생률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데이팅 가해 정도와 가해 경험유무에 대한 성별간 차이분석 결과, 남녀를 분리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확인하였다. 또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학생은 $r=.62$ ($p<.001$), 여학생은 $r=.89$ ($p<.0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기타 데이팅 기간에 따라 폭력 가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데이팅 기간과 폭력가해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남학생은 $r=.13$ ($p<.01$), 여학생은 $r=.09$ ($p<.05$)의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데이팅 가해를 종속변수로 한 최종 중다회귀분석에서 데이팅 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않았다.

2. 데이팅 폭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우선 중다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경로분석에서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통해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녀를 분리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4),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 값이 .60을 넘지 않았고, 또 각 변수의 VIF 값이 남녀 모두 .60~.92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자기회귀 현상의 부재를 살펴보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이 계수가 1.87~2.26까지로 나타나, 이 변수들을 모두 회귀분석에 투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을 분리하여 크게 두 가지 중다 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연구가설 1, 3과 5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경험 변수들, 사회학습이론 변수들, 통제이론 변수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이들 변인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중다 회귀분석이 이루어 졌고, 또한 연구가설 2와 3은 가정폭력 경험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각 3개의 변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한 일련의 중다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남녀를 분리하여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데이팅 폭력 가해 경험유무 차이

	가해 경험 유무	남학생 n (%)	여학생 n (%)	χ^2 값
심리적 공격	없음	44 (13.3)	45 (9.6)	$\chi^2 = 2.63$
	있음	288 (86.7)	424 (90.4)	
신체적 폭력	없음	199 (59.9)	208 (44.3)	$\chi^2 = 18.90^{***}$
	있음	133 (40.1)	261 (55.7)	
전체 데이팅 폭력	없음	42 (12.7)	39 (8.3)	$\chi^2 = 4.02^*$
	있음	290 (87.3)	430 (91.7)	

* p<.05 *** p<.001

<표 4>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여학생 (n=467) 남학생 (n=331)	부모간 폭력	부모로 부터의 폭력	폭력 사용 기대	폭력 허용도	갈등 대처 행동	애착	신념	몰입	데이팅 폭력	평균	표준 편차
부모간 폭력		.52*	.19*	.18*	.07	-.40*	-.10*	-.08*	.19*	.48	.52
부모로부터의 폭력	.53*		.22*	.27*	.12*	-.37*	-.20*	-.07	.32*	.49	.49
폭력사용기대	.12*	.09		.37*	.22*	-.12*	-.16*	-.06	.30*	2.03	.41
폭력허용도	.24*	.26*	.12*		.19*	-.10*	-.13*	-.03	.29*	1.82	.45
갈등대처행동	.06	.14*	.23*	.07		-.15*	-.19*	-.07	.38*	2.36	.72
애착	-.34*	-.34*	-.16*	-.06	-.19*		.17*	.16*	-.11*	2.89	.43
신념	-.13*	-.10*	-.09	-.17*	-.16*	.14*		.23*	-.20*	2.69	.44
몰입	-.08	-.10*	-.09*	-.16*	-.03	.18*	.24*		.02	2.96	.46
데이팅 폭력 가해	.14*	.32*	.38*	.28*	.43*	-.15*	-.19*	-.10*		.64	.64
평균	.39	.42	1.52	1.74	2.06	2.87	2.60	2.96	.44		
표준편차	.48	.45	.37	.49	.58	.42	.48	.49	.54		

* p<.05 (대각선 위는 여학생,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의 상관계수임)

1) 남자 대학생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우선 남자 대학생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5),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만이 데이팅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 아버지로 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은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및 신체적 데이팅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부모간 폭력관찰 경험은 데이팅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Gwartney-Gibbs, Stockard와 Bohmer (1987) 및 Foo와 Margolin(1995)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지만, 우리나라의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학습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세 변인은 모두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이 결과는 Foshee 등(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통제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변인들은 데이팅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5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전혀 지지되지 않았다. 이 결과

는 Foshee 등(1999)의 연구에서 통제이론 변수 가운데 신념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8개의 독립변인들이 데이팅 폭력 가해 변량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데이팅 폭력 가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갈등대처행동($\beta=.33, p<.001$)으로 공격적인 갈등대처행동을 사용할수록 데이팅 폭력가해 정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력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beta=.28, p<.001$)를 할수록,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beta=.26, p<.001$)이 많을수록, 그리고 폭력허용도($\beta=.17, p<.001$)가 높을수록 데이팅 폭력 가해 정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2와 4의 검증을 위해 사회학습 이론 및 통제이론 매개변인들에 대한 가정폭력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표 6), 부모간 폭력은 폭력 허용도($\beta=.14, p<.05$)와 애착($\beta=.2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부모간 폭력을 관찰한 정도가 높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았고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더 낮았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폭력허용도($\beta=.19, p<.01$), 갈등대처행동($\beta=.15, p<.05$) 및 애착($\beta=-.26,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이 많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고 공격적 갈등대처 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더 낮았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연구가설 2와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여자 대학생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여자 대학생의 경우, 우선 가정폭력 경험 변인들 및 매개변인들이 데이팅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정폭력 경험 변인 가운데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만이 데이팅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부모간 폭력 관찰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도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의 체벌경험은 대학생의 데이팅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르지만,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팅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한다.

또한 사회학습 이론의 세 변인 모두 데이팅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가설 3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Foshee 등의 연구(199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데이팅 폭력 피해에 초점을 둔 유선영(2000)의 연구에서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팅 폭력 피해정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팅 폭력 피해 뿐 아니라 가해도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통제이론 변수 가운데 신념 만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신념이 높을수록 데이팅 가해 정도가 낮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고등학생의 비행에 신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의 연구에서 신념이 낮을수록 비행 정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모든 독립변인들이 여자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비율은 28%로 나타났으며, 갈등대처행동($\beta=.30, p<.001$),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beta=.22, p<.001$), 폭력사용기대($\beta=.14, p<.01$), 폭력허용도($\beta=.11, p<.05$), 그리고 신념 ($\beta=-.09, p<.05$)의 순으로 데이팅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공격적인 갈등대처행동을 할수록,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폭력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할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신념이

<표 5> 데이팅 폭력 가해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데이팅 폭력 가해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b	β	b	β		
가정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	-.00	-.08	.00	.03		
	부모로부터의 폭력	.30	.26***	.29	.22***		
사회학습 이론 변수	폭력사용기대	.40	.28***	.22	.14**		
	폭력 허용도	.18	.17***	.16	.11*		
	갈등대처 행동	.30	.33***	.30	.30***		
통제이론 변수	애착	.00	.04	.00	.05		
	신념	-.00	-.07	-.13	-.09*		
	물입	-.00	-.01	.10	.07		
상수		-1.13		-1.11			
R ²		.37		.28			
F		24.08***		21.66***			

* p<.05 ** p<.01 *** p<.001

<표 6> 매개변인들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

남자 대학생 (n=331)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회학습 이론 변수						통제이론 변수					
		폭력사용 기대		폭력 허용도		갈등대처 행동		애착		신념		몰입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부모간 폭력	.01	.11	.14	.14*	-.00	-.02	-.17	-.20***	-.10	-.10	-.00	-.03
	부모로부터의 폭력	.00	.03	.21	.19**	.22	.21***	-.24	-.26***	-.00	-.05	-.01	-.09
	상수	1.48		1.60		1.70		3.05		2.66		3.01	
	R ²	.02		.08		.04		.17		.02		.01	
	F	2.59 [†]		14.94***		6.94***		32.48***		3.11*		1.97	
여자 대학생 (n=469)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회학습 이론 변수						통제이론 변수					
		폭력사용 기대		폭력 허용도		갈등대처 행동		애착		신념		몰입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부모간 폭력	.01	.10 [†]	.01	.06	.00	.04	-.24	-.23***	.01	.01	-.01	-.07
	부모로부터의 폭력	.14	.17*	.22	.24***	.17	.16**	-.20	-.22***	-.19	-.21***	-.00	-.04
	상수	1.92		1.69		1.89		3.10		2.77		3.00	
	R ²	.06		.07		.03		.19		.04		.01	
	F	13.83***		18.68***		6.67***		55.73***		9.64***		1.87	

† p≤.10 * p<.05 ** p<.01 *** p<.001

낮을수록 데이팅 폭력 가해 정도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 여학생의 가정폭력 경험 변인들이 매개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6), 부모간 폭력관찰 경험은 애착($\beta=-.28$, $p<.001$)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부모간 폭력을 관찰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더 낮았다.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몰입을 제외한 모든 변인, 즉 폭력사용기대($\beta=.17$, $p<.05$), 폭력허용도($\beta=.24$, $p<.001$)와 갈등대처행동($\beta=.11$, $p<.05$)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애착($\beta=-.22$, $p<.001$)과 신념($\beta=-.21$, $p<.001$)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2와 4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폭력허용도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의 차이에 관한 유선영(2000)의 연구에서 부모간 폭력 및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폭력허용도가 더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20-60대 여

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기 가정폭력 목격 경향이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연복(2000)의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 목격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런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폭력허용도가 유의하게 더 높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4)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 변수의 매개효과

우선 데이팅 폭력 가해에 대한 전체효과 분석 결과(표 7), 남녀 모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남학생 $\beta=.34$, 여학생 $\beta=.31$)이었고, 그 다음으로 공격적인 갈등대처행동 (남학생 $\beta=.33$, 여학생 $\beta=.30$)이었다. 가정폭력 경험의 전체 효과를 보면, 남학생 모두 부모로부터의 폭력은 데이팅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매개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던 반면, 부모간 폭력 경험의 데이팅 폭력 가해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 미치

지 못하였다.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데이팅 가해에 미치는 전체효과에서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32%이었고 여학생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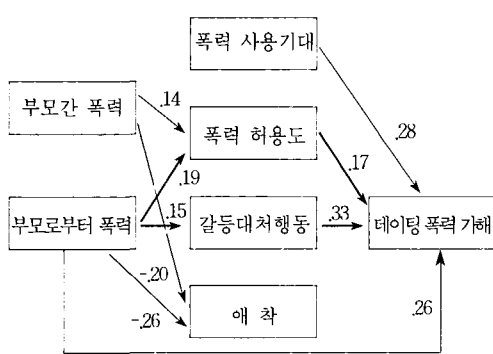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경험의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 변수를 통한 매개 효과를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매개변수의 세 가지 조건, 즉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야 하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야 하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기초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고, 그 결

과를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그림 2),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데이팅 폭력 가해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또 폭력 허용도와 갈등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두 가지 사회학습이론 변수는 데이팅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폭력 허용도와 갈등대처행동만이 매개변수의 조건에 부합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자대학생의 경우 통제이론 변수들은 모두 매개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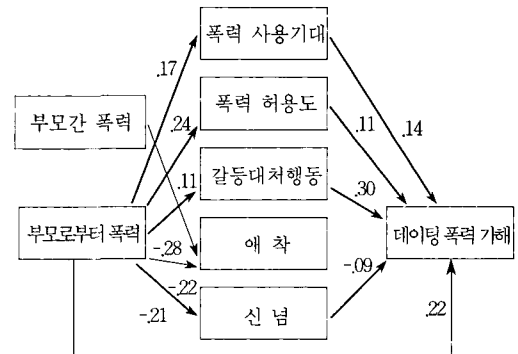
<표 7> 데이팅 폭력 가해에 대한 경로분석 인과효과의 분석

		남학생 데이팅 폭력 가해			여학생 데이팅 폭력 가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가정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	-.08	.06 (40%)	.02	.03	.01 (25%)	.04
	부모로부터의 폭력	.26	.08 (32%)	.34	.22	.09 (29%)	.31
사회학습이론 변수	폭력사용기대	.28	-	.28	.14	-	.14
	폭력 허용도	.17	-	.17	.11	-	.11
	갈등대처 행동	.33	-	.33	.30	-	.30
통제이론 변수	애착	.04	-	.04	.05	-	.05
	신념	-.07	-	-.07	-.09	-	-.09
	몰입	-.01	-	-.01	.07	-	.07

() : 전체효과에 대한 간접효과와의 비율



<그림 2> 남학생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그림 3> 여자대학생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그림 2와 3은 유의한 경로만 표시하였으며,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굵은 화살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변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로임)

한편 여자 대학생의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변수의 조건에 부합하는 변수들은 폭력사용기대, 폭력허용도, 갈등대처행동, 신념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팅 폭력 정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폭력 사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았고,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공격적인 갈등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관습적인 규범에 대한 신념 정도가 더 낮았고, 이는 결국 데이팅 폭력 가해 정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모간 폭력 관찰 경험은 남녀 모두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던 반면,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데이팅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남학생의 경우 사회학습이론 변수 가운데 폭력허용도 및 갈등대처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의 경우는 세 가지 사회학습 이론 변수 및 통제이론 변수 가운데는 신념만이 그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및 매개변수들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수들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폭력허용도, 폭력사용 기대, 갈등대처행동이라는 변인을 도출하였고, 통제이론으로부터 애착, 신념, 몰입이라는 변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데이팅 폭력 가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 가해 정도 및 경험유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은 주로 폭력의 가해자이고 여성은 주로 피해자라는 전통적 시각과 반대되는 결과로서, 데이팅 폭력 실태에 관한 외국의 몇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데이팅 폭력 가해와 피해에 대한 의미부여 연구(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에서 피해자의 26.5%와 가해자의 31.3%가 데이팅 폭력에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인관계에 더 민감하도록 사회화된 여성들(Chodorow, 1978)은 이성간의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위로 해석하기 보다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여성은 대인관계를 중시하도록 사회화되므로, 이성교제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더 민감할 것이고 따라서 더 솔직하게 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Stets와 Pirog-Good(1987)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데이팅 폭력 가해의 성차에 대한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는 일부지역 대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전공, 대학소재지 등을 기초로 층화된 할당표집한 결과로서, 표집대상에서의 차이가 데이팅 폭력 실태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데이팅 폭력에 대해서는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 심리적 및 신체적 데이팅 폭력에서는 성차가 없고, 성적 폭력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고, Foshee(1996)의 연구에서도 데이팅 관계에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한 폭력은 더 많이 행사하고, 남성은 성적인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olitor과 Tolman(1998)은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폭력의 형태에 차이가 있어서 남성은 심한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한편, 여성은 중간 수준의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들은 폭력의 빈도 뿐 아니라 심각성이나 형태에 따라 성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폭력의 빈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은 가벼운 폭력과 심한 폭력으로 나누고 아울러 성적 폭력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데이팅 폭력의 성차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정폭력 경험 변수 가운데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데이팅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매개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는데,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난 결과였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력은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전체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남녀 모두 사회학습 이론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특히 부모의 자녀학대가 자녀의 데이팅 폭력으로 이어짐을 입증하는 결과로서 가정폭력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실행과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는 여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수 내용을 보강하고, 이를 더 많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면 가정폭력의 세대간 재생산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줄이는데 초점을 둔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폭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녀들의 기대와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또는 자녀들의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갈등대처 행동양식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이성간의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간 폭력 관찰 경험은 관련된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데이팅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못하였다. 그러나 데이팅 폭력 가해와의 단순 상관분석 결과 여학생은 $r=.19$ ($p<.05$), 남학생은 $r=.14$ ($p<.05$)의 관계를 보여 미약하지만 이 두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발견한 DeMaris(199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부모간 폭력 관찰 경험은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r=.52\sim.53$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데이팅 폭력가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 폭력 관찰 경험이 데이팅 폭

력에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부모간 폭력 관찰 경험 변인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변수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성별을 분리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는데, 남녀에게 공통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효과도 가장 컸던 반면,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팅 폭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견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변수들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남학생의 경우 그 매개 변수는 폭력 허용도와 갈등대처행동이었던 반면, 여학생은 폭력 허용도와 갈등대처행동 외에도 폭력사용 기대와 신념이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학습이론 변인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하였던 반면, 통제 변인들 가운데서는 신념만이 여학생의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Benda & DiBlasio, 1991; Krohn, Lanza-Kaduce & Akers, 1984)에서도 사회학습이론 변수가 통제이론보다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남녀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남녀별로 매개역할을 한 변수가 다르게 발견되었다는 점은 데이팅 관계에서 갈등이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교육시 남녀별로 다른 측면들에 초점을 둔 개입이 유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신념을 제외한 통제이론 변수들은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착은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한 통제이론변수들은 대부분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정폭력 경험 변인들 및 데이팅 폭력 가해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통제이론변수들을 사회학습이론 변수들과 동시에 투입하여 그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통제이론 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하게 발견되었을지라도,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통제이론 변수들의 매개역할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는 이성교제가 친밀감 형성과 낭만적 사랑의 시간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이성간의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팅 폭력은 부부폭력의 전조라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성관계 증진을 위해서 뿐 아니라 부부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데이팅 폭력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데이팅 폭력은 다른 매개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는 이성교제나 혼전 단계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나 갈등대처행동을 다루는 것이 유용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자신이 성장한 가족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경험이 현재 폭력에 대한 자신의 허용적인 태도나 폭력사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공격적인 갈등대처 행동에 미친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이성교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격적인 갈등대처행동은 사회학습이론 변수들 가운데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이성교제의 지속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종단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의 역동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장기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한계가 있고, 특히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왜곡된 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은 현재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제한하였으므로, 혼전 이성교제 단

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대학생 뿐 아니라 결혼 전 이성교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데이팅 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경아(1998).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의 부적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정, 김득성(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I)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용미(1996a). 미혼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용미(1996b).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I: 이론 검증과 유/무 경험 집단의 비교. *원광대 논문집*, 31(2), 1221-1223.
- 김은희, 김정옥(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9차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135-150.
- 김재엽(1998). 한국가정의 폭력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사회복지학회 제 4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준호(1992). 한국인의 폭력에 관한 태도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백경임(1998). CTS2의 자녀용으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대한 타당성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6(2), 77-89.
- 신덕용(2001). 가정폭력이 청소년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세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

-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 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연복(2000). 성장기 가정폭력 목격 경험이 가정폭력의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련(1998).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원단체연합회(2000). 한국교육연감, 2000년판 통권 28권. 서울: 대한교과서.
- 한국여성개발원(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저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저자.
-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2, 277-320.
- Alexander, P. C., Moore, S., & Alexander, E. R., III. (1991). What is transmitted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57-668.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es, statistics and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35-257.
- Benda, B., & DiBlasio, F. (1991). Comparison of theories of adolescent sexual exploration. *Deviant Behavior*, 12, 235-257.
- Bernard, M. L., & Bernard, J. L. (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283-286.
- Carter, J., Stacey, W. A., & Shupe, A. W. (1988).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ssessment of the generational transfer hypothesis. *Deviant Behavior*, 9, 259-273.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Maris, A. (1990). The dynamics of generational transfer in courtship violence: A biracial explo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219-231.
- Foo, L., & Margolin, G. A.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351-377.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oshee, V., & Bauman, K. E. (1993). An assessment of the temporal order among the elements of the bond in Hirschi's control theory: A study of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9, 88-104.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2.
- Friedman, J., & Rosenbaum, D. P. (1988). Social control theory: The salience of components by age, gender, and type of crim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4, 363-381.
- Gwartney-Gibbs, P. A., Stockard, J., & Bohmer, S. (1987). Learning courtship aggression: The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ersonal experiences. *Family Relations*, 36, 276-282.
-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 Christopher,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lmuss, D. S.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 Krohn, M. D., Lanza-Kaduce, L., & Akers, R. (1984). Community context and theories of deviant

- behavior: An examination of social learning and social bonding theories. *Sociological Quarterly*, 25, 353-371.
- Lloyd, S. (1987). Conflict in premarital relationships: Differential perception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 36, 290-294.
- MacEwen, K. E. (1994). Refin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hypothesi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 350-365.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rgolin, G., Burnan, R. S., & John. R. S. (1989). Home observations of married couples reenacting naturalistic conflicts. *Behavioral Assessment*, 11, 101-118.
- Menard, S., Elliott, D. S., & Wofford, S. (1993). Social control theories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Studies on Crime and Crime Prevention*, 2, 69-87.
- Molidor, C.,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2), 180-190.
- Murphy, J. E. (1999). Dating abuse and forced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In G. T. Hotaling, Finkelhor, J. T., & Straus, M. A. (Eds.), *Family abuse and its consequences: New directions in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Nye, F. I. (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Wiley.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O'Keefe, M., & Treister, L. (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against Women*, 4(2).
- Riggs, D.,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onfeldt, H. M., Kimb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70-78.
- Sappington, A. A., Pharr, R., Tunstall, A., & Rickert, E. (1997). Relationships among child abuse and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4), 319-329.
- Stets, J. (1992). Interactive processe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65-177.
- Stets, J., & Pirog-Good, M. M.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Straus, M. (2002).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study. <http://pubpages.unh.edu/~mas2/IDM6.htm>
- Straus, M., Hamby, S. L., Boney-NcCoy, S. R.,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p. 1-32). NY: Praeger.
- Zaidi, L. Y., Knutson, J. F. & Mehn, J. G. (1989). Transgenerational patterns of abusive parenting. *Aggressive Behavior*, 15, 137-152.

(2002년 12월 30일 접수, 2003년 3월 4일 채택)